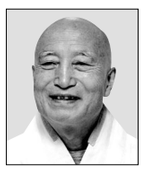
일 주 문



경허 선어록 강설

설정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스님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경내 황하정루에서 경허선어록을 강설한다.



스리랑카 물품지원

김규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7월 12일 스리랑카 숲 보호 활동가 와나와시 테로 스님에게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무원 스님, 국가보훈평화공헌대상 수상

7월 1일, 참전유공자 보훈 및 남북교류 추진 공로로



천태종 대전 광수사 주지 무원 스님〈사진〉이 2017국가보훈평화공헌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국가보훈평화공헌대상 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유영옥, 국가보훈학회장)는 7월 1일 무원 스님에게 2017국가보훈공헌대상 종교지도자부문 대상을 전달했다.

무원 스님은 1979년 단양 구인사에 출가한 후 천태종 총무원 사회부장, 총무부장,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역임했으며 2월 3일 대전 계룡산 광수사 제8대 주지에 취임했다.

무원 스님은 2014년 부산 삼광사 주지 시절 참전유공자들에게 자비의 쌀을 전달하는 등 보훈활동에 앞장섰다. 또 삼광사에 나눔광장과 힐링광장을 만들어 '나눔 불사'를 전개했다.

개성 영통사 복원불사를 비롯해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했으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등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에 앞서 2009년 명락사 주지로 재임시 다문화 가정 여성을 돕는 쉼터를 개소하는 등 다문화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법공 스님, 완도사암연합회장에



완도 신흥사 주지 법공 스님〈사진〉이 7월 16일 완도군불교사암연합회장에 취임했다.

신흥사 관음전서 봉행된 취임식에서 법공 스님은 "완도는 섬으로 돼 있어 모이는 것조차 쉽지 않다. 앞으로 소통과 화합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내고자 한다"며 "지난해 국제해조류박람회를 통해 연합방생법회와 봉축행사, 제등행렬을 진행해 자부심을 느꼈다. 앞으로도 회원사찰과의 협의를 통해 더욱 장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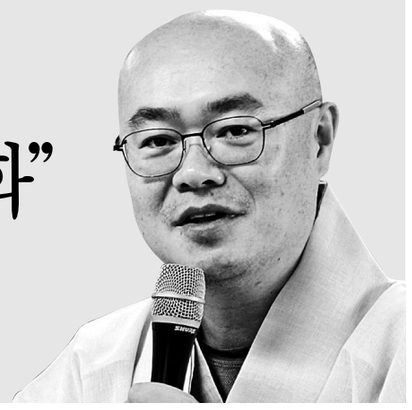
한편 행사에는 백양사 유나 일수 스님, 前회장 정진 스님, 박현식 완도 부군수, 박인철 행정자치위원장, 천양숙 군의원을 비롯해 300여 대중이 동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산하시설 · 운영사찰 유대 통해 위기능력 강화"

Interview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신임 상임이사 묘장 스님



"불교계에서 복지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영향력도 증대되는 겁니다. 과거 스님들이 탁발을 통해 매일 세상 사람들을 만났듯, 복지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비행을 실천하겠습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신임 상임이사로 임명된 묘장 스님〈사진〉이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묘장 스님은 불교계 복지 컨트롤타워로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위기 능력을 강화하고, 운영지원 사찰 및 산하기관과 유대를 견고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 산하시설이 192개인 만큼 곳곳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생길 수 있다. 산하시설은 본 재단에 소속된 만큼 직접적인 유대관계를 통해 함께 위기에 대응하고, 방향성을 찾겠다. 또한 운영지원 사찰의 소임자가 바뀌는 시기에 재단과 연대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하나 되어 나아가겠다."

특히 묘장 스님은 불교복지 인재 양성

"과거 탁발로 세상 사람 만났듯
복지 통해 사람들에 자비 실천"
재단 직영 복지관 운영 확대해
현장 경험 쌓은 인재 양성 주력

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방법은 '직영 복지관' 운영이다. 직영 복지관에서 현장 경험을 쌓은 인재들을 활용, 재단의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자산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스님은 "직영 복지관과 재단 간의 인적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겠다. 현장 경험을 쌓아 복지 트렌드를 파악하고, 나아가 복지정책 개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묘장 스님은 또한 불교계 국제구호 NGO 더프라미스 상임이사로도 활동 중인 만큼 국제구호 활동 및 NGO단체와 연계에도 나설 것을 내비쳤다. "불교계는 국제구호 활동 시 현지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여러 단체들이 함께하면 경제적 · 인력적인 면에서 분명 효율적"이라면서 "국제구호 사업에 있어서는 불교계 여러 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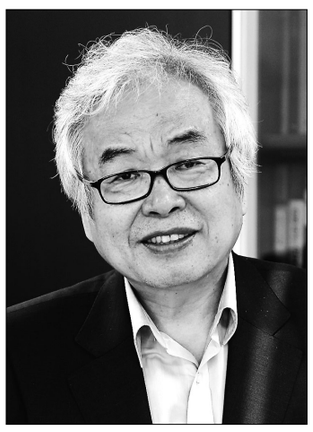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7월 17일 묘장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과 합심해 재단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묘장 스님은 1991년 직지사에서 법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1년 사미계를, 1996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연화사 및 도리사 주지, 직지사 부주지, 총무원 사회국장, 금오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장 등 역임한 바 있다. 현재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상임이사 소임을 맡고 있다.

박아름 기자

"이제라도 전통불교음악 가치 회복해야"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
7월 17일 첫 재가자로 임명



조계종 불교음악원의 신임원장으로 국악가 박범훈(69 · 사진) 씨가 7월 17일 임명됐다. 이는 불교음악원 설립 이래 첫 재가(在家) 원장으로, 박 원장은 그동안 불교음악에 미친 혁혁한 공을 인정받아 신임 불교음악원장을 맡게 됐다.

박 원장은 중앙대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무사시노 음학대학서 작곡과, 동대학원서 음악연구과를 졸업했다. 이후 동국대서 '불교음악의 역사적 고찰과 실체'를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고 불교음악 연구 및 작곡에 전념해왔다. 대표적으로 국악 교성곡 '붓다' '보현행원성' 등 대작품을 비롯해 다수의 찬불가를 작곡했다.

특히 오래전부터 불교음악 발전을 위한 기구 구성을 주창하며 불교음악원 설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임 불교음악원장으로서 박 원장의 목표도 '불교음악의 정체성 확립'과 '연구보존을 통한 발전 도모'에 중점을 둔다. "종교음악에는 각 종교만의 철학과 가치가 담겨야한다. 하지만 한국불교음악은 해방 후 서양교회 음악에 바탕을 둔 '창작 찬불가'가 대거 유입되며 정통성이 흐려졌다.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작곡된 음악들을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라도 전통불교음악의 가치를 회복해 올바로 계승해야한다."

특히 박 원장은 "불교음악원이 그 역할의 중심에 서야한다"면서 "전통불교음악을 제대로 연구 보존함으로써 새로운 불교음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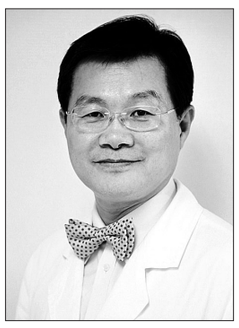
이어 "불교음악은 불교와 분리해 존재할 수 없다. 불교가 번성해야 불교음악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불교음악이 포교의 한 방편으로써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교음악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조계종 총무원이 불교음악원을 관리 감독한다.

2015년 설립된 불교음악원은 불교 음악을 전문으로 다루는 조계종령 기구로, 불교음악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연구 계승을 위해 구성됐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동국대 신임 의료원장 이진호 교수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자광)는 7월 12일 제 18대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제8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으로 이진호 교수(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 사진)를 임명했다.

이진호 의료원장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의과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일산병원에 임용된 후 제3대 동국대일산병원장, 제15대 동국대의료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내과과장, 소화기병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다.

신성민 기자

선화여고 은해사서 합동수계식



동곡학원 선화여고(교장 이희명) 학생 300여명과 교직원 40명, 학부모 30명이 7월 20일 은해사에서 열린 합동수계식에 참여했다.

이날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은해사가 2010년 동곡학원 선화여고를 인수한 후 매년 1억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학생 및 교직원 모두가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 지역명문으로 거듭나 너무나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은해사는 동곡학원 선화여고가 더욱 좋은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바른법연구원 제6회 금강경 수련회



금강경 독경 수행모임 바른법연구원은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괴산 이화여대 고사리수련관에서 '제6회 금강경 연수원 수련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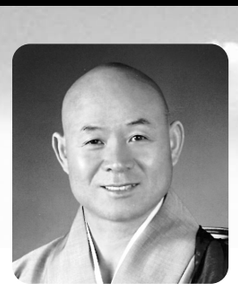
13일 시작된 수련회는 참가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난제들을 금강경의 지혜로 풀어내는 분임토의와 금강경 독송, 선지식과의 대화, 금강경 세미나 등으로 진행됐다. 15일에는 정봉석 포스코 건설 지사장이 금강경의 지혜를 활용해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2300억원 규모의 폴란드 폐기물발전소 입찰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7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